

‘스피드 축제’ F1 코리아 그랑프리 D-100

‘돈 버는 하마’ 만들기 준비 착착

경주장 완공·숙박시설 120% 확보...성공준비 완료

중앙정부 지원 이끌고 오고싶은 대회로 만들어야

‘세계 최대의 스피드 축제’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가 6일로 100일(10월14일 개막)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에서 F1 머신들의 ‘폭풍 질주’가 시작되는 것이다.

F1은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로 꼽히는 ‘모터스포츠의 꽃’으로, 연간 400만 명의 관중이 TV 시청자 수만 6억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이벤트다. 특히 실질적 대회 운영을 전담하고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치르는데다, 지난해 개막 때까지 완공되지 못했던 경주장 공사가 모두 마무리된데다, 운영상의 미숙함 등도 보완될 것으로 예상돼 성공 개최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경주장 준공, 교통도 ‘청신호’= 지난해 최대 두들겨질 중 하나인 교통 대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선, 조직위가 수도권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2호선을 이용, 영산강하구역을 거쳐 경주장으로 진입하는 차로를 분산하기 위해 추진중인 무영대교와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올해 개통된다. 이 도로 개통으로 기존 영

산강 하구언 교통량의 40%가 분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회기간 고속버스와 시내버스까지 경주장까지 연장 운행한다. KTX 등 임시열차 증편(왕복 2편), 그리고 인천공항과 무안공항간 임시 항공노선(왕복 3편)도 협의 중이다. 경주장 주변에는 1만99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경주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600대를 투입한다.

숙박 문제도 개선됐다. F1경주장을 중심으로 광주·전남에서 이용 가능한 객실은 4만2557실로, 대회 기간 중 필요한 객실 수(3만개)를 고려하면 120%를 확보했다는 게 조직위 판단이다. 또 고급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광주·전남에 관광호텔급 고급 숙박시설 9곳 626실을 확보했고 크루즈를 활용한 여행상품 등도 운영한다. 경주장도 준공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올해 대회 수익성은? = 지난해 대회는 ‘돈 버는 하마’라는 비아냥이 일 정도로 수익성에서 참패했다. 상업성을 추구하는 대회인 만큼 티켓

판매량, 스폰서십 유치 등으로 수익성을 창출해야 하지만 타이틀 스폰서는 커녕, 메인그랜드스탠드 위에 마련된 스카이박스 판매도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공짜표와 자유이용권이 수만장 뿌려지면서 스탠드를 메웠을 정도다.

조직위는 지난해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우선, 지난해 평균 46만원 수준인 티켓값을 30% 수준으로 낮췄다. ‘가격합리화’와 ‘맞춤형 할인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총 9종류에 달했던 좌석별 가격을 5종으로 단순화시키고 초기 구매자들을 위한 할인제도를 도입, 8월 말까지도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선착순 1만명에게 준결승전이 열리는 토요일권을 50% 할인된 4만35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기리에 마감됐다. 기업대상 VIP 고객에게 선보이는 CS(Corporate Suite) 판매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마지막까지 험길 점은? = 수십만원의 비싼 티켓을 구입한 국내 관람객들에게 F1대회 외에 즐길만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을 선사해 다시 오고 싶은 대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 여전히 미흡한 개최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 누구나 와보고 싶은 대회와 경주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미준공 상태 또다시 경주를 치르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2011 F1코리아 그랑프리 불 조성’을 위한 서울지역 우수기업 CEO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송기진 광주은행장과 이팔성 우리금융그룹회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두 행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영암 F1·여수박람회 성공 개최” 광주은행·서울 기업들 힘 보탠다

우수기업 CEO초청 간담회

광주은행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2011 F1코리아 그랑프리 불 조성’을 위한 서울지역 우수기업 CEO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전남 최대 국제행사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2011 영암 F1그랑프리 대회’를 서울지역 기업들에게 홍보하고, 국제대회의 성공개최와 서울지역 불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기진 광주은행장과 이팔성 우리금융그룹회장을 비롯해 박준영 전남도지사, 강동석 여수

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 광주은행이 선정한 서울지역 우수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해 양 행사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송기진 은행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후원은행인 광주은행이 올 F1 그랑프리 대회와 내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며 서울지역 우수기업 CEO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09년 10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후원은행으로 선정된 후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국가적 불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재호기자 lion@

광산구 매니페스토 최우수



민행매 광주 광산구청장(사진)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의 ‘2011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단은 민 구청장이 추진한 전국 최초의 공공 분야 정규직화 정책과 ‘광산형 창조적 일자리 창출 계획’에 높은 점수를 줬다.

민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일자리 정책을 ▲공공직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 등 세가지 축으로 시행해 왔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

F1경주장 결국 전남개발공사가 떠안는다 2천억원 공사채 발행 인수...9월 매매 계약

전남개발공사가 결국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사들이기로 했다. 예초 ‘사업성이 없다’는 중간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주장 인수에 나서기로 한데다, 민간사업자 없이 전남도가 출자한 지방기업이 운영하는 만큼 전문학적 부채도 결국 지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밖에 없게 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광주일보 6월 1일자 1면 참조>

전남개발공사는 5일 도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PF 부채 상환을 통한 자산인수 방식’으로 F1 경주장을 대화운영법인인 카보로부터 인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회 운영기업인 카보(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가 경주장 건설을 위해 끌어들이는 PF 대출금(1980억원)을 전남개발공사가

모두 떠안는 대신, 카보가 갖고 있는 경주장 소유권을 비롯, 운영·관리권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전남도는 개발공사가 경주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PF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720억원(연간 120억)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토지와 건물은 20년간 활용한 후도에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토지는 선매수 후, 건물은 준공 후 이전키로 했다.

개발공사는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요청하고 9월에 F1경주장 매매 계약과 자산등기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남개발공사의 부채(5356억원)가 7000억원 이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다, F1 경주장 매입 타당성 용역의 부정적 결과에도 불

구하고 개발공사가 사들이기로 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가 카보 대주주인 SK건설이 지난해 ‘시공사 주식 매도권’을 행사한 뒤 6개월이 넘도록 SK를 대신할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결국 ‘만만장’ 공기기업에게 부채를 떠안겠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편, 전남개발공사의 자산은 작년말 결산기준 총 1조265억원, 부채총액은 5356억원, 자본총액은 4909억원으로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00%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개발공사측은 “공사는 이미 카보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삼포지구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만큼 인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총리 “J프로젝트 부지문제 해결 하겠다”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간개발공사(농촌공간개발공사)가 사들이기로 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가 카보 대주주인 SK건설이 지난해 ‘시공사 주식 매도권’을 행사한 뒤 6개월이 넘도록 SK를 대신할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결국 ‘만만장’ 공기기업에게 부채를 떠안겠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편, 전남개발공사의 자산은 작년말 결산기준 총 1조265억원, 부채총액은 5356억원, 자본총액은 4909억원으로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00%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개발공사측은 “공사는 이미 카보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삼포지구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만큼 인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J프로젝트에 대해 총리실의 조정 기능까지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어서 국무총리가 조정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총리실을 방문, 김 총리와 임재민 국무총리실장을 면담하고 F1대회 지원과 J프로젝트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전남의 최대 현안사업이 F1대회와 J프로젝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지문제에 대해 “관련 법과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총리실이 조정해 나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른

1면 ‘광주살이’서 계속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진보’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40.8%, ‘중도’는 41.6%로 광주시민들은 정치적 진보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44.8%)이 여성(36.7%)보다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광주시민 성인 흡연률은 20.1%, 75%는 음주를 즐겼다. 광주의 수돗물에 대해 75.3%가 “그냥 마시기엔 약간 불안하고 끓여서 마시면 안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민이 직접 즐겨하는 스포츠는 축구(12.1%), 배드민턴(10.3%), 야구(9.3%) 순이었고, 즐겨보는 스포츠는 야구(40.0%)가 으뜸이었다. 좋아하는 꽃과 숫자는 각각 장미(28.7%)와 ‘7’(28.6%)·‘3’(24.6%)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0%포인트다.

경매투자

- 공동투자 및 자본주 모집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지상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50%미만 물건만 투자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주)일화 기획생산 호남지사모집

당사는 (주)일화의 기획생산 공식지정업체로 향암, 향당노로 세계특허 10개획득한 신물질 발효인삼·홍삼을 취급할 호남지역 파트너를 구합니다

전원내츨렐 F&D
www.fnd.or.kr
고객센터 0505-302-1111

주식회사 일화

한자교육 <천자문과 한자성경>으로 배우는 한자교육

<아동 : 00명, 성인 00명을 3개월, 1년 과정 모델교실에 특별 초대함>

한자성경으로 단기간에 한자를 한글처럼 알게 됩니다!

한글은 3장 정도만 자유롭게 읽는 분야입니다. 한자성경은 한자전문이 아니므로 기본 장 및 장만 읽기 되면 한자를 한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뜻은 한글처럼 동시에 알게 되고 한자성경 사용교과에 1년 정도 출석만으로 4000여 자를 한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천자문으로 단기간에 한자를 한글처럼 알게 됩니다!

천자문은 고대 중국서사로 삼황에서 삼국시대까지 40여명의 인물과 나라, 지명, 약어(준말)와 옛날 읽기교재로 배우게 되면(방문자 5분에 읽는 천자문 증정)단기간에 천자문을 누구든지 예전처럼 쉽게 배우고 한자를 한글처럼 아는 지름길이 됩니다.

• 시범강좌 및 교육설명회
7월 10일(주일) 오전11시 예배와 오후 2시, 7월 7일, 21일(목요일) 오전10시 (준비관계로 사전접수요망)

• 찾아오시는길 : 광주 수원지구 성덕중학교 건너편 피리버킷트 뒤편 에덴의교회 ☎연락처 : 010-3911-3907 062 433 3907
강사 : 전제웅원장 (한자교육연구소장, 10년간 한자교육방법연구 한자는 한글보다 쉽다 저자)

성경주문(각주 30,000원, 비닐20,000원, 찬송가본문 40,000원 택배비포함)성서공회발행 <교육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주문 가능합니다.>
• 교육상담 ☎ 010-2218-1255

한자교육(전도학교)연수원(시 군 구 지부 모집 중임)
광주시 광산구 광산구 정덕동 1086번지성덕중학교 건너편
☎ 062-433-3907
• 한자교육연수원 cafe.daum.net/jeodanglove
• 메일 : junhanja@hanmail.net

정부공사 조기발주, 자재확보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건축, 토목 공사 자재공급 안내

- 원석 현장직구입 가능 (물량대량확보)
 - ① A급 : 재당 5,500원
 - ② B급 : 재당 5,000원
 - ③ C급 : 재당 3,000원 이상
- 견치석 현장직구입 가능 (물량대량확보)
 - ① 공사용(30×30×35) : 900원
 - ② 묘속용(25×25×30) : 900원
 - ※비수요기로 가격 100원 인하
- 전석/시석 현장직구입 가능 (물량대량확보)
 - ① A급 : 25톤 차량 190,000원
 - ② B급 : 25톤 차량 170,000원
- 판재
 - ① 반재공급(반재대량확보)
 - ② 완재공급
- 골재 전품목 공급

*전 품목 현장 상차도 기준

문의전화 : 010-9199-7000
010-7171-5382

WWW.MODONG.CO.KR

(채석장소재) 모동기업사 (판재공정) 모동석재(주)

주소 : (670-853)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 6-1
전화 : 055)944-5382 / FAX : 055)944-5381
H·P : 010-7171-5382 modongco.kr@nate.com

주소 : (670-852)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15
전화 : 055)943-8946 / FAX : 055)943-8947
H·P : 010-3550-6678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약서비스 • 개인신용평가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리)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I시세-80%+α (60%)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80% 금리: 연 3.93%~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담당 010-7112-3135